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한국영상자료원, 현존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 '제물포 개항장' 영상 발굴

1908~1910년 제작 추정 무성 기록영화, 인천시에 제공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소장 필름 공동 복원·수집 성과



▲ <한국 : 서울과 제물포 풍경>(1908~1910 추정)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1900년대 초 인천 개항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를 새롭게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인천시에 제공했다. 이번에 확인된 영상은 1908년부터 1910년 초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성 기록영화로, 네거티브 질산염 35mm 필름을 원본으로 한다.

해당 자료의 제명은 <한국 : 서울과 제물포항 풍경(Corée : vues de Séoul et du port de Chemulpo)>으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 보존고에 <Corée : 1360>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돼 있던 필름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상자료원이 내용을 검토해 제목을 정정했다. 이번 수집을 통해 상영용 프린트와 함께 4K 디지털 스캔 영상 파일 및 사운드 파일을 확보했다.

영상은 20세기 초반 한국의 도시와 항구 풍경을 기록한 자료로, 전반부에는 1915년 철거 이전의 돈의문(서대문) 일대 모습이 담겨 있으며, 후반부에는 경인선 시종착역이던 인천정거장 인근 제물포 개항장의 풍

경이 수록돼 있다. 특히 제물포를 촬영한 장면은 개항장 인천의 항만 시설과 도시 공간, 그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번에 확인된 영상 자료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가운데 인천 제물포 개항장을 촬영한 가장 이른 시기의 영상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며, 약 1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영상 속 간판과 문자 판독이 가능할 정도의 화질을 유지하고 있다. 영상에는 하역 인부와 지게꾼, 노점 행상 등 개항장 일대에서 일상을 영위하던 조선인들의 모습이 비교적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또한 기존 문헌 기록으로만 알려졌던 임시 세관청사의 건립 시기와 1906~1909년경 세관 용지(현 중부경찰서 일대) 매립 및 건축 공사 과정이 영상으로 확인돼, 인천 개항장 형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각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영상에 담긴 주요 촬영 장소는 현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4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개항 이후 인천이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시기의 도시 구조와 주변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자료는 2023년 11월 영상자료원이 프랑스 출장 중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보존고 내부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통해 질산염 네거티브 필름을 확인하면서 존재가 처음 확인됐다. 이후 2024년 5월 현지 재방문을 통해 필름 상태를 점검하고,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 공동복원 및 수집에 합의했다. 2024년 6월부터는 프랑스 파리의 '리마지네 리트로바타(L'Imagine Ritrovata)' 지사에서 공동 복원 작업을 진행했으며,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전체 복원 감독을, 영상자료원이 작품 제목과 제작연도 판별, 한국어·불어 영상 해설 자막 작업을 맡았다.

영상자료원은 이번에 확인된 인천 개항기 영상 자료를 인천시에 제공했으며, 해당 자료는 향후 도시 역사 콘텐츠, 전시 영상, 연구 및 교육 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영상자료원은 앞으로도 해외에 소장된 한국 관련 영상 자료에 대한 조사와 공동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근대기 한국의 영상 기록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수집팀 이지영 대리 (02-3153-2055)

[참고자료] 영상 주요 장면



① 돈의문 풍경 / 1분 21초 ~ 3분 8초



② 인천 제물포항(신축 공사 중인 임시 세관청사) / 4분 53초 ~ 5분 19초



③ 인천 제물포항(목제 데크를 댄 석축 잔교) / 5분 19초 ~ 6분 18초



④ 인천 제물포항(국내 거래 전용 미국 부두에 정박한 조선 선박) / 6분 40초